

# 스타벅스와 만난 강진청자 ‘원더풀’



스타벅스 2022년 광복절 기념 강진청자 상품. <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 군, 문화상품 개발 제안 3년만에 스벅 첫 지역상생 청자상품 출시

강진군이 제안한 사이렌과 고려청자의 콜라보레이션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광복 77주년을 맞아 제작한 강진청자 상품을 지난 15일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 2020년 말부터 고려청자를

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스타벅스에 제안했고, 지속적인 협의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광복절 기념상품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강진청자 상품은 청자 티컵과 청자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스타벅스에서 고려청자의 디자인을 반영해 강진청자와 어울리도록 제작한 스테인리스 텀블러도 함께 선보인다.

고려청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맑은 투명한 유약이다. 강진청자 상품 역시 유약의 두께에 따라 색이 짙고 열어지는 고려청자의 특징을 잘 살려냈으며, 컵 뚜껑과 트레이 손잡이는 금으로 장식했다. 특히 청자 티컵은 스타벅스 로고인 사이

렌(Siren)과 고려청자의 연꽃 모티프의 조화가 아름답다.

강진청자 상품은 스타벅스가 특정 지역과 협업해 출시하는 첫 지역상생 상품이라고 강진군은 설명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강진군의 지역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강진군의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청자 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공모 화순군 선정...10억 확보

화순군이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화순군은 최근 ‘지역 소비처 연계 반가공상품 육성’ 사업을 제안, 가장 높은 점수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은 작목을 서로 결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융복합 상품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5곳을 선정했으며 화순군은 지역 농특산물인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쌀을 활용한 반가공제품을 생산해 지역소비처 연계 로컬푸드 가공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진 전략과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연꽃 만개한 담양 고가제. 담양읍 담빛문화지구에 위치한 고가제에 연꽃이 가득 피었다. 고가제 주변으로는 산책길이 조성돼 주민의 사랑을 받는 힐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담양군 제공>

## 영산강 유역 나주 주민 2.4% ‘기생충 감염’

### 시보건소, 532명 검사 13명 감염 감염대상자 치료제 무료 투약

나주 주민 일부에서 날 민물고기나 새, 생굴, 조개류를 통해 유래되는 참굴큰입흡충 감염자가 나왔다.

나주시 보건당국은 영산강을 품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주시보건소는 검사 결과 장내 기생충인 ‘간흡충·장흡충·참굴큰입흡충’ 양성자에 대한 치료제를 무상으로 투약한다고 밝혔다.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나주는 각종 기생충이 토착화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 보건소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장내 기생충 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4개면 지역 감염 고위험군 532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3명(2.4%)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기생충은 총 3종으로 감염자는 ‘간흡충’ 8명(1.5%), ‘장흡충’ 4명(0.75%), ‘참굴큰입흡충’ 1명(0.15%) 등이다.

보건소는 감염 대상자에게 무료로 맞춤형 치료제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률이 가장 높은 간흡충은 초기에는 무증상이지만 급성 감염기에 상복부 통증, 발열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

만성기에는 허약,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황달,

간경변, 담관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드시 투약해야한다.

장흡충은 십이지장이나 위, 장 등에 기생하며 출혈과 궤양, 장폐색을 일으키거나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참굴큰입흡충에 감염되면 복부 불쾌감과 설사, 선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형승 나주시보건소장은 “장내 기생충 질환 예방을 위해선 민물고기를 날 것이 아닌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칼, 도마 등 주방용품은 10초 이상 가열 후 사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함평군, 멕시코 감자 ‘히카마’ 수확 한창

### 비타민 풍부 당뇨·변비 효능 샐러드·동치미 등 요리 활용

함평에서 ‘히카마(압빈)’ 수확이 한창이다.

함평군은 손불면에서 ‘멕시코 감자’로 불리는 히카마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열대 뿌리채소인 히카마는 배처럼 아삭하고 단맛이 나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 샐러드, 동치

미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된다.

또한, 꼬투리와 잎에는 천연 살충성분(로테논)이 있어 생물농약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갈슘, 인, 비타민이 풍부해 당뇨, 변비 등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함평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목 육성을 위해 1.4ha 규모의 히카마 재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 손불면의 한 농가에서 농민들이 히카마를 수확해 들여보내고 있다. <함평군 제공>

## 장성군, 균형발전사업평가 ‘우수’...전남서 유일

### 인센티브 4억 4000만원 확보

장성군이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해 군특예산 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는 매년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 평가에서 ▲지자체 내외부 통합 추진체계 구축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 환류 시스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현재 균형발전위 포괄보조사업으로 군정도시재생과, 농식품유통과가 협업 중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성장축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남 내에서 장성이 유일하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분야 우수등급 시군은 장성군을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군특예산 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향후 추진하게 될 군 사업에 투입해 군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